

마성의 ‘재벌집 막내아들’…세계를 홀렸다

시청률 25% 돌파 ‘화려한 피날레’ 빠른 전개·물고 물리는 반전 매력 美 OTT 플랫폼 50여개국서 1위를 갓 주 3회 방송 첫 도전 대성공

송중기·이성민 주연의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올해 안방극장의 최대 흥행작에 등극했다. 지난달 18일 시작해 25일 종영하며 25%(이하 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넘기며 마지막까지 식지 않은 인기를 과시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해외 시청자의 관심도 끌어낸 드라마는 원작인 동명 웹소설이 완결된 지 4년 만에 ‘역주행’ 인기를 얻는 데 힘을 보탰다. 또 주 3회 방송이라는 첫 시도로 향후 안방극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다.

●**재벌과 맞서는 카타르시스 ‘만국공통’**
종영 전날인 24일 이미 25%의 시청률을 넘어선 드라마는 반전을 거듭하며 화력을 키워왔다. 드라마는 재벌가 순양그룹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 송중기가 순양가의 막내손자로 환생해 인생 2화차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특히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을 비롯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닷컴 버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카드 대란 등 1980~2000년대 주요 사건을 중요한 배경과 소재로 담아내며 시청자 공감을 얻었다.
극중 재벌가 인물들과 맞서는 송중기의 이야기는 해외 시청자들의 시선도 끌었다. 아시아 콘텐츠를 공급하는 미국 OTT 라쿠텐 비키에서 미국·캐나다·브라질 등 50여 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아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배우 이성민(사진 위)과 송중기 등 배우들의 호연과 1980~2000년대 주요 사건과 소재로 담아내 몰입감을 높였다. 사진제공 | JTBC

시아권 OTT인 Viu에서도 인도네시아·홍콩·싱가포르 등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정상에 이름을 올렸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에도 동시 방영권을 판매한 제작사 래몽래인과 SLL중앙은 덕분에 352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

를 이미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3회 방송, 새로운 시도에 관심

드라마는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산경 작가가 웹 콘텐츠 플랫폼 문피아에 연재한 원작인 동명 웹소설도 화제작으로 끌어올렸다. 송중기의 죽음을 사주한 범인이 초반에 드러나는 원작과 달리 드라마는 막판까지 그 정체를 숨겼고, 그가 재벌가에 복수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게 펼쳐내면서 원작 웹소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문피아의 모회사인 네이버웹툰은 드라마 공개 이후 10일 동안 웹소설의 유료 결제가 급등해 관련 매출이 6배가량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25일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원작을 바탕으로 한 웹툰도 드라마 공개시기에 맞춰 8일 북미 지역과 11일 일본에서 선보여 상위권에 안착했다”고 말했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 3회 편성 방식도 방송가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각 방송사는 향후 주 3회 방송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OTT 환경에 익숙해진 시청자가 사흘 동안 연달아 드라마를 보면서 호평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JTBC 전략편성실 관계자는 “주 3회 방송으로 관련 보도와 온라인 바이럴 등이 시청률은 물론 화제를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예능·드라마 방송 시간대를 고정시킨 방송사로서는 당분간 시도하기 힘든 편성 방식”이라면 서도 “속도감이 빠른 장르물의 방영 시간을 늘리지는 등 의견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유지혜 기자 yjh304@donga.com

걸그룹 빛난 K팝…역대급 앨범 판매량 예고

을 누적 판매 8000만장 돌파 전망 걸그룹 판매량 지난해보다 17%↑ 아이브, 260만장으로 1200% 경증

블랙핑크, 레드벨벳, 아이브, (여자)아이들, 에스파, 르세라핌 등 걸그룹의 글로벌 활약에 힘입어 올해 케이(K)팝 앨범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인 8000만 장을 돌파할 전망이다.

25일 씨클차트(옛 가온차트)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물 음반(상위 400위 기준)은 7419만5554장 팔렸다. 작년 5708만9160장보다 29.9%나 늘어난 규모다. 가요계는 올해 말까지 8000만 장 판매고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앨범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걸그룹의 글로벌 팬덤 확장이 시장에 영향



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앨범 누적 판매량 가운데 걸그룹은 32.6% 비중을 차지했다. 66.2%의 아이돌 그룹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하지만 아이돌 그룹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줄어든 반면, 걸그룹은 16.5% 늘어나 올해 활약이 그만큼 성과를 냈음을 보여준다. 누적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한 아이돌 그룹이 작년 12개팀에서 올

해 11개팀으로 줄어든 가운데 1개팀이었던 걸그룹이 올해 10개팀으로 크게 늘어났기도 했다.

특히 신인인 아이브가 260만여 장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40만장의 판매량을 늘려 눈길을 끈다. 또 걸그룹 1위를 차지한 블랙핑크의 282만여 장에 근접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올해 앨범 누적 판매량 1위는 그룹 방탄

소년단으로, 670만여 장을 팔아치웠다. 최근 5년 사이 세계적인 인기와 팬덤에 힘입어 케이팝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끈 방탄소년단은 6월 앤솔러지 앨범을 끝으로 멤버별 솔로 활동과 군 입대 등을 예정했다. 이에 케이팝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들의 행보가 전체 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

씨클차트 김진우 수석연구위원은 “방탄소년단의 진과 RM이 발표한 솔로 음반이 각각 103만여 장과 68만여 장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선전했다”면서 “내년에도 다른 멤버들의 솔로 음반과 군부 판매량을 고려하면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가 앨범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스트레이키즈가 583만 장의 판매량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0만 장을 더 팔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여주 교체 우려 딛고…잘나가는 ‘환혼2’

고윤정 주연의 무협 판타지 드라마 “스토리·의상 등 매력적” 높은 평점 韓드라마 유일 넷플 많이본 TV 톱10

tvN ‘환혼: 빛과 그림자’(환혼 파트2)가 안방극장에서 뜻밖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드라마는 파트2에서 정소민에서 고윤정으로 여주인공을 교체해 시청자 몰입 등에 대한 우려를 샀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전작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고윤정과 이재욱, 황민현 등 신인들을 내세웠음에도

치열한 주말드라마 경쟁 속에서 8%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드라마는 파트1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을 다루고 있다. 가상 국가인 대호국의 명문가 자제인 이재욱이 신녀 고윤정과 만나 새로운 로맨스를 이루고 있다. 전작에서 무자비한 살수인 ‘낙수’의 영혼이 깃든 정소민이 폭주한 후 석화됐다가 낙수의 모습으로 외형이 변한 채 되살아나 고윤정이 됐다는 설정이다. 이에 고윤정은 이재욱과 정소민이 파트1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시청자들이 파트1과 2의 연결고리를 따



tvN ‘환혼: 빛과 그림자’(파트2)가 신인 고윤정의 주인공 교체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대의 시청률을 거두며 인기를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 | tvN

라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빠른 속도로 인기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OTT 콘텐츠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론에 따르면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세계 많이 본 TV 프로그램’ 중 한국드라마로서 유일하게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넷플릭스가 12일부터 18일까지 시청시간을 집계한 ‘글로벌 톱

10’ 비영어권 TV 부문에서도 파트1과 2가 나란히 5, 6위에 랭크됐다. 해외 리뷰 사이트인 IMDb에는 6100여 명의 시청자로부터 10점 중 8.7의 높은 평점을 얻었다. 100여 개의 리뷰에는 “이야기와 의상이 매력적이다” 등의 호평과 더불어 “정소민이 그림자란 고윤정의 캐릭터도 재미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회정 드라마평론가는 25일 “‘환혼’은 무협판타지의 재미를 로맨스로 잘 살려냈고, 그 안에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또 “가상 국가와 시대 배경으로 한 덕분에 어느 문화권에 치중되지 않은 채 이야기의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해외 시청자들의 관심도 자아낸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5

영화 ‘아바타2’ 500만 돌파…박스오피스 1위

영화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2)이 25일 500만 관객을 넘겼다. 수입·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에 따르면 개봉 12일차인 ‘아바타2’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누적 관객 수 537만 4000여 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이어갔다. ‘아바타2’는 2009년 개봉 당시 15일째에 500만 관객을 모은 전작보다 빠른 속도로 관객을 늘려가고 있다. ‘아바타2’ 제작·출연진은 공식 SNS를 통해 “한국 팬들의 놀라운 성원에 감동받았다”며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무열·윤승아 결혼 8년 만에 첫 아이 임신



김무열(오른쪽)과 윤승아.

배우 김무열·윤승아 부부가 부모가 된다. 25일 두 사람의 소속사인 프레인TPC는 “두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만나게 됐다”며 “윤승아는 온전한 기쁨 속에서 태교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출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승아도 이날 개인 SNS에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가족의 탄생”이라는 글과 초음파 사진을 공개했다. 김무열과 윤승아는 3년 열애 끝에 2015년 결혼한 후 8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다. 김무열은 SBS 드라마 ‘트러 리’에 출연 중이며, 현재 영화 ‘범죄도시4’를 촬영하고 있다.

신동엽, 10년만에 3번째 KBS 연예대상 수상



신동엽

방송인 신동엽이 10년 만에 세 번째 KBS 연예대상을 받았다. 신동엽은 24일 밤부터 25일 오전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2 KBS 연예대상’에서 김숙, 김종민, 이정규, 전현무 등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했다. 신동엽은 2011년부터 KBS 2TV 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앞서 2002년 ‘해피투게더’, 2012년 ‘안녕하세요’로 수상했다. 그는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 가수들을 일일이 호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게 대표로 상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영웅,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가수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기록했다. 2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에서 임영웅이 정상에 올랐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은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7147만여 개의 트로트 가수 빅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수치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임영웅의 브랜드평판 지수가 지난해보다 52.34% 상승한 1066만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가수 브랜드평판에서도 그를 방탄소년단을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내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씨어터에서 ‘아임 히어로’ 공연을 연다.

결혼한 박수홍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박수홍

23일 결혼한 개그맨 박수홍이 소감을 밝혔다. 그는 25일 자신의 반례로 ‘다홍이’의 SNS 계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과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덕분에 기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3세 연하의 아내 김다에 씨와 서울 모처에서 23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박수홍과 가족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늦은 결혼식을 치렀다. 박수홍은 이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로부터 ‘볼 키스’를 받고 활짝 웃는 자신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공개했다.